

울산, 석유화학 수출 44% 급증

한국무역협회는 울산지역 8월 수출이 80억47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6.6% 증가했다고 9월28일 발표했다.

1-8월 수출총액은 677억36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8% 늘어 사상 최대의 증가율을 나타냈다.

무역수지는 8월 3000만달러 흑자, 1-8월에는 11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.

8월 수출 증가율은 석유제품 80.5%를 비롯해 석유화학 44.0%, 자동차 23.7%, 자동차부품 51.5%, 선박 72.4% 등으로 나타났다.

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과 중국수출 확대, 자동차는 미국수출 확대, 자동차부품은 해외 현지공장의 수요증가 영향이 컸다.

<화학저널 2011/09/29>